

다구를 찾아서

3 청자



녹색으로 보이는 청자 잔 으뜸으로 여겨

웨이우요(越州窯)는 한대에서 북송대에 이르기까지 약 1000년 동안 중국 청자의 중심지였다. 웨저우요는 저장성(浙江省) 동북부지역의 옛 지명 웨저우에 분포돼 있는 가마터를 통칭하는 것으로, 사오싱(紹興)과 닝보(寧波)지역에 위치해 있다. 이 웨저우요 청자는 당대(唐代) 문인들에게는 차를 감상하는 다구(茶具)였다. 육우는 탕 색을 감상하기에 가장 좋은 다구로 칭송했다. 비색청자(秘色靑瓷) 또는 비색자(秘色磁)로 불렸던 웨저우요는 당대 말에서 오대까지 왕들에게 공납되기도 했다.

청대에 편찬된 것으로 알려진 <전당시(全唐詩)>에는 웨저우요의 청자를 언급한 시가 여러 편이 남아 있어서 이를 통해 웨저우요의 비색에 대한 변화

서 만들어진 다구가 웨저우를 따라갈 수 없는 이유로 "상저우의 자기는 은색과 비슷하고 웨저우의 자기는 옥색을 닮았다. (이것이)상저우의 자기가 웨저우의 자기만 못한 그 첫 번째이다. 상저우의 자기가 눈과 같다면 웨저우의 자기는 얼음과 같다. (이것이)상저우의 자기가 웨저우의 자기만 못한 그 두 번째이다. 상저우의 자기는 흰색이어서 차색이 붉고 웨저우의 자기는 푸르러서 차색이 녹색으로 보인다. (이것이)상저우의 자기가 웨저우의 자기만 못한 그 세 번째이다(若邢瓷類銀 越瓷類玉 邢不如越一也 若邢瓷類雪則越瓷類水 邢不如越二也 邢瓷白而茶色丹越瓷青而茶色綠 邢不如越三也)"라고 했다. 이것은 당시 북방사람들이 선



웨이우요(越州窯) 청자. 쉐먼강시(連雲港市) 박물관 소장.



웨이우요 청자굽.

를 알 수 있다. 곽환(顧況은 <다부(茶賦)>에서 웨저우요 청자를 옥에 비유했는데(越泥似玉之甌), 이와 같은 비색은 8세기 말에서 9세기 초에 만들어진 것이다. 그리고 9세기 중엽, 육구몽은 <비색월기(秘色越器)>에서 "천봉취색(千峰翠色)"으로 표현했고, 서인은 <공여비색차진(貢餘秘色茶盞)>에서 "취색에 청색이 녹아나서 또렷한 빛이 신선하다"라고 해 웨저우요의 비색이 달라졌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당대에는 청자의 색이 푸른 녹색에 가까웠고 당대 말에는 영롱한 비취색으로 변화했다.

<다경>의 다구조에는 차를 달이는데 필요한 다구를 열거해 놓았는데, 찻잔으로는 '완은 웨저우가 으뜸이다. (중략) 웨저우와 웨양의 자기는 모두 푸르다. 푸르면 차에 유익하고 차는 연한 누른빛을 드러낸다. 상저우의 자기는 희어서 차의 빛깔은 붉다. 수저우의 자기는 누레서 차의 빛깔은 자줏빛이다. 홍저우의 자기는 갈색이어서 차의 빛깔은 검다. 모두 차에 마땅치가 않다(盃越州上(中略) 越州瓷岳瓷皆青 靑則益茶 茶作白紅之色 邢州瓷白茶色紅 壽州瓷黃茶色紫 洪州瓷褐茶色黑 悉不宜茶)'라고 했다.

이는 웨저우요의 자기를 극찬함과 동시에 다른 가마에서 생산된 자기가 차를 마시기에 적합하지 않은 이유를 상세하게 기술했다. 그리고 상저우에

호하던 상저우의 자기를 낮춰 보는 육우의 시가를 드러낸 부분이다.

이어 웨저우요 자기의 기형(器形)을 설명했는데 "웨이우요 완의 구연부(口緣部)는 바깥으로 말리지 않고, 굽은 말려서 얇다. 반 뒤 이하를 담는다"라고 했다.

육우는 잔에 담겨있는 차가 녹색으로 보이는 청자 잔을 으뜸으로 여겼다. 차를 마실 때에는 오관(五觀)을 동원하는데 특히 시각적인 아름다움을 차 맛만큼이나 중요하게 여긴 것이다. 이것은 탕 색을 돋보이게 하는 자기를 선호할 만큼 차에서 예술성을 찾으려는 심미안이 발전했다는 뜻이다. 이러한 차의 다각적인 안목은 송대의 음다법과 도자기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위 사진의 청자 다완은 웨저우요에서 생산된 것으로, 1972년 장삭성(江蘇省) 쉐먼강시(連雲港市)에서 출토됐다. 완의 높이는 3.8cm, 지름은 14.9cm, 바닥 지름은 6cm로, 완의 몸통 부분이 약간 비스듬하고 두께는 비교적 얇은 편이다. 안팎으로 유약이 고루 발려있고 색이 균일하며 윤기가 흐르면서 광택이 아름다운 것이 특징이다.

백기란 bdaol@hanmail.net · 동아시아문화연구소 연구원

박재완 기자의 불교사건이야기

24 부석사 무량수전 앞에서



오래 전에 영주 부석사에서 누군가를 만나기로 한 적이 있었다. 만나기로 한 사람은 아직 오지 않았고 부석사엔 아침 안개만 자유했다. 멀리서 운해를 걷어낸 소백산 능선들이 하나 둘 깨어나고 있었고, 기다려야 하는 시간이 아무도 없는 무량수전 마당을 마음껏 거닐게 했다. 이슬에 젖어있는 배흘림기둥의 간격은 여전히 아름다웠고, 사뻐한 날아와 앉은 추녀의 곡선도 여전히 우아했다.

이런 아침 안개 속에서 보는 무량수전의 아름다움은 여전히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것이었다.

그날, 약속이 잘못되어 만나기로 했던 사람을 만날 수 없었다. 먼 거리를 달려온 시간과 수고가 허망했지만, 이런 아침 아무도 없는 무량수전의 마당을 마음껏 걷게 해준 그 잘못된 약속이 고맙기도 했다. 나는 그 때 부석사 거처에 또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다.

옛 판화의 세계

법을 듣고 활연히 깨닫다 (聞法頓悟)

이 삽화는 덕소 스님이 법안종의 개조인 법안문의 선사의 상당법문을 통해 깨닫는 장면을 아름다운 주변의 풍광과 함께 판각한 작품이다.

덕소(德韶, 891~972) 스님은 중국 송나라 때 승려로 속성은 진 씨이며, 법안문의 선사로부터 인가를 받아 후한 건우 원년(948)에 오월국 총의왕의 국사로 됐다. 천태종의 교적이 고려에 구비돼 있음을 듣고 총의왕에게 청해 교적을 구했으며, 그 후 법안종의 2조가 됐다. 스님은 82세 나이로 입적했다. 하루는 법안 스님이 법좌에 오르자 어떤 스님이 물었다.

"어떤 것이 조계의 근원이 되는 한 방을 물입니까?" "이것이 조계의 근원이 되는 한 방울의 물이니라" 덕소 스님은 대중 속에 있다가 그 말을 듣고서 완전히 깨쳤으며, 자신이 깨달은 것을 법안 선사에게 알리니 법안은 이를 인가하면서 말했다.

"그대는 국왕의 스승이 돼 조사의 도를 크게 빛낼 것이다. 나는 그대만 못하다."

당시 사람들이 덕소 스님을 지자대사의 후신이라 말했으며, 오월의 총의왕은 국왕의 자리를 이어받자 덕소 스님을 국사로 모

셨다. 당시 지자대사의 가르침을 전수받은 의적 스님은 "지자 대사의 가르침이 세월이 침원(寢遠)해지자 많은 것이 산락(散落)될까 염려됩니다. 지금 신라국에는 그 원본이 갖춰져 있으니 본래 스님의 자비함이 아니고는 누가 능히 이것을 중국으로 가져올 수 있겠습니까?"

덕소 스님은 이 사실을 총의왕에게 알리니 왕은 신라국에 사신을 보내어 경전을 배껴오게끔 했다.

당시 화창(尙昌)의 법남(845) 때문에 천태지자(天台智者) 대사의 저술들이 대부분 해동(海東, 고려)으로 흘러갔었다. 이러한 사실을 총의왕에게 알리자 왕은 특별히 열 사람의 사신을 파견해 경전을 배껴 돌아오게 했다. 그리하여 불법이 다시 일어나 지금까지 땅에 떨어지지 않으니, 이는 덕소 스님과 의적 스님의 덕택이며 고려의 융성했던 불법 덕분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불법이 인도에서 탄생했지만 중국과 한국을 거쳐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유통되고 있음을 새삼 느낄 수 있는 대목이다.

선학 스님(영주시 고관화박물관 관장)



고관화박물관 소장 <석씨원류(釋氏源流)> 중 문법돈오(聞法頓悟). 불암사판 1673년간행, 반곽(半郭) 27.2×18.0cm

불기 2554년 경인년 부처님 출가제일 기념 민족화합평화기원불교도대법회

대한불교종단총연합회 6대 임원진 취임

• 일 시 : 2010년 3월 23일 (음, 2월 8일) 화요일 오전 11시 • 장 소 : 충북 옥천 IC 입구 명가 연회장

귀의 삼보하옵고

만물이 생동하는 경인년 새봄을 맞아 부처님 이름으로

2천만 불자의 안위를 기원합니다.

각급의 대한민국은 경제, 정치, 사회적으로 혼란과 혼돈이 점철되어 세간에서는 국기가 흔들리는 염려할 정도가 되어 버렸습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불확실성 시대, 이제 불교가 다시 국난극복을 위해 앞장서야 할 때가 왔습니다. 신라 고승 원광법사의 세속오계를 거울삼아 호란과 왜란을 물리친 승가의 정신을 이어받아 오늘의 국난을 극복하는데 사부대중이 나서야 할 것입니다. 이에 발맞춰 지금까지 오매불망 불국정토 구현을 위해 원력을 다저은 대한불교종단총연합회는 국난극복과 더불어 제2의 불교중흥을 위한 대법회 법석을 마련코자 합니다. 바라옵건대 사부대중은 두루 동참하시어 불교중흥과 국가 발전을 위해 큰 원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주최 : 대한불교종단총연합회

세계불교승왕청 CBC108. TV연합불교방송 일봉신문사

■ 문의 : 02)837-2003, 011-356-3427

◆ 대한불교종단총연합회 6대 임원진 명단 ◆

- | | |
|-------|---------------------------|
| 총 재 | 세계승왕 인왕 신판석 (한국불교여래종 종정) |
| 부 총 재 | 보 리 현 광 (대한불교달마선종 종정) |
| | 청 원 박수용 (대한불교불광종 종정) |
| | 법 각 지 오 (대승불교조계종 원로원장) |
| | 안신풍 (대한불교대원종 종정) |
| 회 장 | 의 료 서주범 (근본불교조계종 창종주) |
| 부 회 장 | 법 진 신승도 (호국불교효예종 종정) |
| | 청 암 도한수 (충남불교조계종 종정) |
| | 만 주 조성수 (한국불교대불종 총무원장) |
| | 심 향 법 장 (한국불교구산선문화 회장) |
| | 연 화 덕 산 (대한호국불교소림선종 총무원장) |

- | | |
|------|------------------------|
| 자문위원 | 대 천 문연우 (한국불교지장조계종 종정) |
| | 월 담 성 인 (세계불교화엄종 종정) |
| | 향 덕 박승익 (대승불교조계종 종정) |

회 원

- | | |
|-----|-----------------------|
| 법 안 | 이기욱 (통합불교아미타종 종정대행) |
| 청 산 | 성 운 (대한불교천인종 종정대행) |
| 일 용 | 김철우 (한국불교전법조계종 총무원장) |
| 법 정 | 구철회 (대원불교조계종 총무원장) |
| 은 곡 | 조병남 (한국불교극락조계종 총무원장) |
| 원 각 | 한경수 (대한불교서사종 총무원장) |
| 해 광 | 문동춘 (대승불교달마종 총무원장) |
| 대 성 | 김영기 (대한불교대성종 총무원장) |
| 해 광 | 전충열 (한국불교자비종 총무원장) |
| 원 공 | 유명곤 (현대불교미륵종 총무원장) |
| 안 심 | 박영주 (종단세계선불교 총무원장) |
| 해 름 | 백신권 (해동불교임계조계종 총무원장) |
| 해 봉 | 김일석 (한국불교전통조계종 총무원장) |
| 덕 정 | 이형덕 (대한불교참수행정각종 총무원장) |
| 청 담 | 윤문봉 (한국불교내외종 대표) |
| 법 정 | 덕 암 (대한불교정법종 종정) |
| 지 법 | 반동환 (대한불교지법태고종 총무원장) |
| 해 덕 | 월 명 (대한불교여래조계종 대표) |
| 관 행 | 정숙자 (대한불교관음성종 대표) |

* 연합불교방송/대한불교종단총연합회 홈페이지 참조